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30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재)	00 장사의 신 객주-2015(재)	00 주말 드라마 〈엄마〉(재)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0 키즈 사이언스 5(재)	00 건강클리닉
2		00 2015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여기는 문경〉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똑 똑 키즈스쿨	00 영재발굴단(재)
3	00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천자문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한글날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600회 기획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내 마음의 정원을 찾아서 55 숨 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00 드라마 스페셜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12	50 특별기획 기적의 카트 행복을 담다	50아시아 영화의 힘 〈제5편 중국〉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세계의 눈(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한글이 야호2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5 지식채널e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미앤마이 로봇
14:30 코코몽2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내 친구 아서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절대비법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신짜오! 매혹의 베트남〉
21:30 한국기행 〈우리가 산골로 간 까닭은〉
21:50 EBS 다큐 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창공에 산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I-알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확률과 통계〉
02:30 〃 〈기하와 벡터〉
03:20 〃 〈수학 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 I〉
06:00 〃 〈지구과학 I〉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9:10 〃 〈이은주의 수학 II〉
10: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영어〉
11:00 〃 〈수학A〉
12:10 올림포스 〈국어 II-알짜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14:0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국어 A〉
14:5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 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8:10 EBS N제 〈수학A〉
19:20 〃 〈동아시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EBS플러스2

07:0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강좌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강좌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중학 〈국어(1)(2)〉
09:50 〃 〈수학 1(하)〉
10:30 〃 〈도덕 1〉
11:10 〃 〈국어(3)(4)〉
11:50 〃 〈수학 2(하)〉
12:30 EBS 특강
13:10 등업신공 〈사회 1〉
13:50 〃 〈사회 2〉
14:30 〃 〈역사 1〉
15:10 어휘랑!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15:20 만점왕 〈사회 3-2〉
15:50 〃 〈사회 4-2〉
16:20 〃 〈사회 5-2〉
16:50 〃 〈사회 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5-2〉
17:50 다큐 오늘
18:00 TV중학 〈국어(5)(6)〉
18:40 초등스토리 한국사 (1)(2)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역사 2〉
22:40 〃 〈과학 3(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음 8월 25일 丙辰)

子 48년생 대처한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60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겠다. 72년생 핵심을 찾아야 결론에 도달한다. 84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하나씩 해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84

丑 49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61년생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니라. 73년생 학수고대한 일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85년생 예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50, 27

寅 38년생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질 것이다. 50년생 조치를 취하고 볼 일이다. 62년생 전체보다 국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74년생 소비적이어서는 안 된다. 86년생 중론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자. 행운의 숫자 : 09, 04

卯 39년생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51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돼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63년생 파격적인 것이 낫다. 75년생 정면으로 대응해 승부를 봐야 후환이 없다. 87년생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1, 17

辰 40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64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76년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일 때문에 피로가 쌓인다. 행운의 숫자 : 61, 52

巳 41년생 의지대로 도모해야할 위상이라 하겠다. 53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65년생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77년생 거시적인 관점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53, 69

午 42년생 구상만 잘한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54년생 쉽지만은 않을 것이니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다. 66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78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행운의 숫자 : 44, 20

未 43년생 균형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니 중용의 도를 지키도록 하라. 55년생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당황하지 않는다. 79년생 요령껏 풀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3, 34

申 44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자. 56년생 물이 깊은 곳에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68년생 진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80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9, 72

酉 45년생 자승자박하는 우를 범하지 말지어다. 57년생 득이 되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81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를 따르는 게 영속성을 담보한다. 행운의 숫자 : 57, 36

戌 46년생 손질을 한다면 바람직한 판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58년생 황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 봐라. 70년생 유혹에 휘말릴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65

亥 47년생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59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 끼는 법이다. 71년생 속상할 일이 생기겠지만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83년생 유혹에 휘말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YB 밴드 멤버들. 사진 왼쪽부터 박태희, 허준 , 윤도현, 스캇, 김진원

"스무살 YB, 새로운 20년을 꿈꾸죠"

윤도현 밴드, 15일부터 데뷔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주변에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제안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건 YB가 살아가는 방식과 거리가 멀어요. 저희 방식 그대로 또 다른 20년을 꿈꾸고 싶어요." (윤도현)

록밴드 YB(윤도현 밴드)가 어느새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국에 울려 퍼졌던 '오 필승 코리아'의 주인공이기도 한 YB는 지난 1995년 첫 발걸음을 뗐다. 솔로가수 윤도현으로 시작한 밴드는 1997년 윤도현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음반을 발매했고, 2006년 팀 명을 YB로 변경했다. 이들은 록은 물론 블루스, 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팬들을 사로잡았다.

YB는 현재 윤도현(보컬), 박태희(베이스), 김진원(베이스), 허준(기타), 스캇(기타) 등 다섯 명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YB는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LG아트센터에서 단독 콘서트 '스무살'을 연다. YB는 '스무살' 서울 공연 이후 올해 연말까지 창원, 대구, 부산, 포항, 울산 등 9개 도시 전국 투어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YB는 6일 콘서트 '스무살'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무대에선 20주년 기념곡 '스무살'도 공개됐다.

YB는 "밴드 활동을 20년 동안 해왔다는 데 자부심이 있었다. 또 자축하고도 싶었다"며 "밴드가 어른이 된 느낌이다. 스무살이 된 YB가 더 청년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밴드가 20년 동안 동일한 멤버로 라인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YB는 2000년 소속사와 멤버 교체로 갈등을 빚다 3개월간 해체하기도 했다. 이런 위기를 딛고 YB가 20년을 활동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윤도현은 "사실 20년 이상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하다 보니 20년이 됐다"며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잘 풀려고 노력했고, 수익 분배도 공정하게 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렇다면 20년이란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멤버 모두 2002년 열렸던 '남북예술인 평양공연'을 꼽았다.

박태희는 "평양 공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서 특별하다"며 "2000년 해체했을 때 마지막 공연도 기억에 남는다. 그때 원년 멤버들이 YB가 록밴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힘들었던 순간은 멤버끼리 의견이 갈렸다.

윤도현은 "2000년 해체 즈음해서 너무 힘들었다"며 "내 인생이 음악뿐이었는데 그게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외국인 멤버로 10년 동안 YB와 함께한 스캇은 2011년 출연한 MBC '나는 가수다'를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뽑았다. 김진원은 2003년 오른손을 다친 상태로 전국 33개 도시 투어를 했던 것을 꼽았다.

YB는 2005년 유럽투어 이후 끊임없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스매싱 펌킨스와 미국 투어를 했고, 내년 5~6월 미국에서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윤도현은 "어려운 길이다"라고 운을 뗀 후 "한류 스타도 아니고, 팬덤이 큰 밴드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쉽지 않지만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배 로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윤도현은 "록음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류 음악과 멀어진 상태다"라며 "록을 해도 되나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버틸 테니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하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다음 세대와 멋진 투어를 꿈꾸고 있어요. 20년 후 건장하고 상큼한 밴드와 함께 투어를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을 지키면서 한국에 록 아이콘으로 남아볼께요." (박태희, 김진원)

"팬들이 준 사랑에 감동 남몰래 기쁜 눈물 흘렸죠"

임창정, '또다시 사랑' 음원차트 1위

"제 인생 42살에 '팬들이 이 기쁨을, 큰 행복을 줬구나'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워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신곡 '또다시 사랑'으로 올 가을 음원차트 1위를 휩쓴 임창정(42·사진)의 목소리에는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뚝뚝 묻어났다.

지난 5일 밤 전화로 만난 그는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어색하다"며 "내가 잘됐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이뤄져 나도 후련하고 더는 여한이 없을 정도"라고 웃었다.

사실 임창정은 올가을 앨범을 낼 생각이 없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그에게 오랜 팬들이 신곡 한 곡이라도 내라고 재촉했으니 어찌 보면 등 떠밀려 낸 앨범이었다. 때문에 음원차트 1위에 대한 욕심보다 팬들과 소통하고 보답하자는데 의미를 뒀다.

"MBC TV '라디오스타'에서 '앨범 나오면 1위 한다'고 농으로 얘기했지 실제 요만큼도 1등 할 거라곤 생각 안 했어요. 팬들에게도 평소 '너희가 노래 듣고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면 죽을 때까지 멜로디 흥얼거리며 신곡 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사실 지난달 22일 공개된 '또다시 사랑'은 발매 당일 일부 차트 1위에 오른 뒤 개리의 신곡, 소유와 권정열의 듀엣곡에 밀려 순위가 하락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추석 연휴 JTBC '히든싱어4 도플싱어 가요제'에서 소개된 뒤 차트 역주행을 했고, 지난달 30일 전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는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다. 이후 이 곡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6일까지 1주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그는 "여러 차트에서 5~6위로 떨어지기에 팬들에게 '그냥 즐기자'고 했다"며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부른 뒤 역주행을 했다. 노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의 대표곡에 빗대 이 곡을 '제2의 소주 한잔'으로 평가한다.

"'소주 한잔'은 제가 처음 사랑받은 곡이고 저를 대변하는 노래죠. '또다시 사랑'이 '소주 한잔' 때의 큰 인기와 비견할 순 없지만, 그 곡에 대한 향수가 반영된 것 같아요. 가을과도 맞아떨어졌고요. 그렇게 표현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심지어 그는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만 출연했을 뿐,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 2년 전 '나란 놈이란' 때 음악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사실 그땐 10살, 8살, 6살인 저의 세 아이에게 아빠가 가수란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 열심히 출연했어요. 이젠 아들 친구들이 제가 누군지 알죠. 하하. 그러나 전 순위 프로그램이 아이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수들의 경쟁 무대이자 일하는 터전이죠. 나이 먹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방송 출연은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게 아닌데 이번엔 공연 준비를 해야 해서요."

그는 공연 계획도 없었지만 역시 팬들의 요구에 오는 12월 10개 도시를 도는 전국투어에 나선다.

그는 "팬들 말만 들으면 잘 되는 것 같다"며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다"고 웃었다.

그러고는 가수로서의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 강조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사람만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 든 가수도 목소리가 나오는 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뭔가 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잖아요. 로또도 사야지 당첨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앞으로 후배들에게 '나이 먹고 저 선배처럼 노래할 거야'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연합뉴스